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제 기후거버넌스 논의 이끈다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IN)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 수임

- 한국형 기후 거버넌스 모델, 국제사회 신뢰로 이어져

-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가 8.10(월)부터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IN)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Climate Governance Working Group) 공동의장국을 수임했다고 발표했다.
- 아시아 지역 기관이 동 작업반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공동의장*으로는 기후대응위 강운호 국제협력과장이 선임되었다.
 - *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 : 캐나다 기후연구소 Ross Linden-Fraser 총괄연구실장
 - ※ 공동의장의 별도 임기는 없으나, 통상 1년 주기로 작업반 운영 방향 및 임기 지속 여부 결정
- 이에 따라 기후대응위는 캐나다 기후연구소(Canadian Climate Institute)측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전 세계 기후위원회의 거버넌스 논의를 이끌게 된다.
- ICCIN은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 위임을 받은 독립 기후자문기구들의 국제 협의체로, 2021년 출범 이후 현재 30여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은 기후 기본법제부터 기후위원회의 실무 운영에 이르기까지 기후 거버넌스 전반을 다루는 ICCIN의 핵심 조직이다.
 - ※ ICCIN 작업반(공동의장국) 현황 : △거버넌스(한국,캐나다), △커뮤니케이션·소통(영국,호주), △감축(영국,뉴질랜드), △적응(남아공,아일랜드), △기후재원(공식)
- 이번 선임은 한국이 국제 기후 협력에서 ‘성실한 이행국’을 넘어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 위상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서, 기후대응위가 출범 이후 국제무대에서 축적해 온 활동과 신뢰가 구체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지난 6월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에 참석하여, ICCN이 주관한 ‘제2회 기후 거버넌스 포럼’의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혁신’ 세션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경험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소개한 바 있으며, 이는 이번 공동의장 선임으로 이어지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 기후대응위는 ICCN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으로서 △거버넌스 작업반 의제 선정, △각국 기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식·사례 공유 및 지원 도구 개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등 국제사회 약속의 각국 국내 정책으로의 구현 방안 등을 포함한 주요 기후 거버넌스 의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 ICCN 거버넌스 작업반은 2024년 설립 이후 전 세계 기후위원회의 다양한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집대성한 「기후위원회 설립 안내서(How to Create a Climate Council Toolkit)」 발간을 주도해 왔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검증 방법론, 글로벌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ICCN의 핵심 사업을 이끌어 왔다.

붙임 : 국제기후위원회 네트워크 개요.

담당 부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강윤희 (044-200-1921)
		담당자	사무관	전은세 (044-200-1922)



□ 설립 배경

- '21년 5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주도로 각국 기후위원회간 정책, 사례 공유를 위한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I)' 창설
- * 우리나라는 ICCN 첫 출범시부터 회원국으로 참여 중

□ 미션 및 비전

- 과학·전문가 기반 자문과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 기후정책의 실효성·책무성 제고 및 기후 거버넌스 체계 강화
- 파리협정 등 국제 기후목표 달성 과정에서 기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이행 지원
- 글로벌 사우스 포함, 국가들의 기후대응 역량 강화와 공정전환 지원

□ 주요 활동

- 매년 11월 유엔기후변화총회 계기 ICCN 전체회의 및 세미나 개최
- 분기별 전체회의(화상) 및 매월 운영위 개최, 5개 분야별 작업반 운영 등을 통한 각국 감축 및 적응 정책·사례 등 공유
- 기후위원회 설립·운영 안내서 발간, 회원 기관간 뉴스레터 공유, 지역별 세미나 개최를 통한 개도국 기후위원회 역량 강화 지원 등

□ ICCN 참가 기관 (28개국, 33개 기관) ※ 의장국 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26.6월 기준)

- 유럽 11개국(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우크라이나, 몰타, 유럽연합) 13개 기관
- 북미·남미 5개국(캐나다, 칠레, 과테말라, 멕시코, 브라질) 6개 기관
- 아시아 2개국(대한민국, 필리핀) 2개 기관
- 오세아니아 3개국(호주, 뉴질랜드, 바누아투) 3개 기관
- 아프리카 3개국(나이지리아, 남아공, 레소토) 3개 기관
- 준회원 4개국(호주,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4개 지방 기후위원회
- ※ 옵서버 : 독일, 파키스탄